

내추럴앤도텍, 식물성 여성호르몬 매출 신장

내추럴앤도텍은 최근 식물성여성호르몬제, 인슐린양 성장인자(IGF-1) 분비 촉진제 등의 2006년 매출이 획기적으로 신장되고 있다.

내추럴앤도텍이 개발·판매하고 있는 식물성여성호르몬제는 성균관대 의대 삼성제일병원에서 1년간 임상시험을 통해 안면홍조 및 성교 통증 등을 비롯한 여성 갱년기 증상을 유의하게 개선한 특허성분으로 인삼을 제외한 천연식물 추출물로서는 유일하게 미국으로 30만달러 수출실적을 거둔 바 있다.

내추럴앤도텍은 일반 유통 시장에서도 매출신장을 이루어 2005년 4/4분기 매출실적 18억원에 이어 2006년 1/4분기 수주잔고가 15억여원을 돌파하고 있어, 2006년 매출목표 60억원을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.

한편, 내추럴앤도텍은 2006년 1월10일자로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인슐린양 성장인자(IGF-1)의 분비를 유도하는 조성물과 용도에 관한 특허가 등록됐다고 밝힌 바 있다.

특허 조성물은 내추럴앤도텍이 3년에 걸쳐 세포실험, 동물실험, 임상시험 등을 통해 안전한 식물소재로부터 성장호르몬을 선택적으로 분비 및 촉진시키는 효과를 확인했다. 동물실험에서 IGF-1 농도의 28% 증가, 대퇴부 뼈가 6% 이상 신장되는 결과를 얻었고 임상시험에서는 복용 2개월 후 IGF-1의 혈중농도가 대조군 대비 1개월 후 24%, 2개월 후 30% 증가하는 유의한 결과를 얻은 소재이다.

내추럴앤도텍은 성공사례를 발판으로 2007년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.

<화학저널 2006/03/14>